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성숙한 도덕적 주체로 거듭난다. 왜 어떤 행위가 그르니 설명할 능력을 결여한 채 그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말에 따라 이 행위가 그르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이 행위의 그름에 대한 도덕적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왜 그런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이유로부터 유사한 결론을 추론해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개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적 존재라는 정보로부터 반려견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덕적 이해의 핵심은 일인칭적 경험이다.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목격한 처형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에서야 나는 의식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사형수가 두 어깨를 붙잡힌 상태에서 물웅덩이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만조에 다다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의 불가사의함을,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릇됨을 보았다.” 이때 오웰이 처형 장면의 경험을 통해 왜 사형이 잔혹한지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의 도덕적 이해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가 이 상황에서 이유를 따져 추론을 했다거나, 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대해 어떤 관념도 형성할 수 없다.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열정을 관찰자가 상상을 매개로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상상해 도덕적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 누군가가 분노의 충동에 싸여 다른 이에게 적개심을 표출하고 싶다고 하자.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도, 과도한 분노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즉각적 감정과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는 관찰자를 상상해야 한다. 이 내재적

관찰자가 분노를 긍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의 행동을 상상된 관찰자의 시각으로 반추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조절과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이 내재적 관찰자는 편견이 없는 공정한 관찰자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기여한다.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비판하십시오.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 (나), (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오.

<p>활용 모집단위</p>	<p>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p>
<p>문항해설</p>	<p>[문제 1] 행위가 왜 옳고 그른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와, 도덕적 의의를 지닌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 중 자신이 더 공감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라는 문제이다.</p> <p>[문제 2] 문학이 상상, 공감, 감정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와 연결시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한 근거를 설명하고, 문학 독해에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기제가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 (나), (다)를 모두 사용해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p> <p>문학의 도덕적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가), (나), (다)의 유기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지문과의 개별 비교에 주목하거나, [문제 1]에서 사용했던 (가)와 (나)의 대조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1]의 근거를 반복할 경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동시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p>
<p>출제의도</p>	<p>[문제 1] 도덕적 이해의 요건에 대해 (가)와 (나)가 보이는 차이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하고, 두 견해 중 하나에 입각하여 상대 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p> <p>[문제 2] 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내는 확장적, 비판적, 응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p>
<p>교육과정 출제근거</p>	<p>[개념] 도덕적 이해, 추론,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문학의 가치와 기능, 공감, 상상</p> <p>[출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li> <li>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li> <li>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li> </ol>

자료출처

[교과서]

-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2018, 172-192쪽  
김동환 외, 《국어》, 교학사, 2018, 12-33쪽  
류수열 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164-173쪽  
박영민 외, 《국어》, 비상교육, 2018, 290-301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2018, 160-173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26-39, 74-95, 114-133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24-41, 64-81, 100-115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22-36, 94-115, 134-151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96-109, 74-89, 118-13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10-45, 32-43, 112-125, 270-306쪽  
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11-41, 74-91, 110-127, 290-327쪽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12-25, 74-98, 292-329쪽  
이송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12-19, 76-89, 276-321쪽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9, 7-36, 58-83, 104-108, 301-327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21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0-17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4-17쪽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2-1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17쪽  
김국현 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8, 32-41쪽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8, 34-43쪽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8, 32-41쪽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8, 34-41쪽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2018, 30-39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9, 10-15, 128-135쪽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9, 15-18, 132-141쪽  
변순용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9, 10-15, 128-135쪽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9, 11-17, 133-141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11-17, 134-143쪽

[기타]

- 아담스미스(김광수 역),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Alison Hills, 《Moral Testimony and Moral Epistemology(*Ethics* 120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09  
Paulina Sliwa, 《Moral Understanding as Knowing Right from Wrong(*Ethics* 127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17

#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 [사회과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뇌는 주관적 예측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활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뇌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인지 자원의 과도한 소모와 행동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의 한 양상이다. 반대로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어 기존 패턴에 집중해 학습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을 과신하는 경우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판단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자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해석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과 편향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 적응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진화적으로 볼 때 개체 수준에서 이와 같은 인지 기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개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도태되어 왔다.

(나) 적정 가치를 벗어난 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수반한다. 우리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2001년의 인터넷 주식 폭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가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모형이 아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현재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최선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야 과거의 주가 하락 사례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미래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 가치 모형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이미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 이들 기업의 현재 이익보다 주가가 고평가되었으며, 우리의 적정 가치 모형에 따르면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므로 주가는 적정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재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AI 기술의 혁신으로 미래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와 국제 무역 분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다. 주변인들은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한다는 경험 법칙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에 근거한 직관적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주변인들을 따라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다양한 정보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가 동향은 지나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투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나는 투자를 하고 싶으나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있다.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 각각에 나타난 판단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2] (나)와 (다) 각각의 인지 성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p>활용 모집단위</p>	<p>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p>
<p>문항해설</p>	<p>[문제 1] (가)에 따르면 인지 성향에 따라 정보의 학습률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인지 성향에 의해 (나)와 같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무시, 자신의 모형에 대한 과신 혹은 맹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와 같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반응, 직관적 판단 결여, 행동 지연 혹은 과도한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 성향의 극단적인 오류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p> <p>[문제 2] 이 문항은 두 인지 성향—(나)의 “확신 기반 직관”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사례와 결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다.</p>
<p>출제의도</p>	<p>[문제 1]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p> <p>[문제 2] (나)의 확신에 기반한 직관적 인지 성향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의 인지 성향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지 성향이 사회적 구조와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했는지 묻고자 하였다.</p>
<p>교육과정 출제근거</p>	<p>[개념] 환경 적응성, 확신, 불확실성, 행동 지연, 판단 오류, 주시</p> <p>[출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li> <li>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li> </ol>
<p>자료출처</p>	<p>[교과서]</p> <p>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46-59, 72-83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46-55, 64-73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74-83, 116-129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52-61, 70-97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40-49, 68-7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40-49, 68-75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0-155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28-145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32-145쪽</p>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34-14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6-14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2019, 13-17, 27-33, 53-89, 175-181, 195-201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2019, 13-31, 47-81, 169-195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9, 12-21, 30-37, 52-73, 82-85, 174-183, 192-203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2019, 11-33, 53-91, 171-193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2019, 10-17, 28-35, 50-77, 168-175, 183-19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13-49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0-51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20, 12-47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2-47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0-47쪽

[기타]

Karl Friston, 《The free-energy principle: a unified brain theory?(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2) 에 수록)》, Nature, 2010  
Peter Dayan, Geoffrey E. Hinton, Radford M. Neal, Richard S. Zemel, 《The Helmholtz Machine(*Neural Computation* 7(5)에 수록)》,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  
E.S. Browning, 《Worries Rebound on Bull's Birth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10  
N. Gregory Mankiw, Stephan P. Zeldes, 《The Consumption of Stockholders and Nonstockhold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29, Issue 1)》, 1991

#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총 100점)

## 제시문 (가)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性), 정(情), 려(慮), 위(偽)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 네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단계인 '성'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날 때부터 지닌 본성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 본성입니다. 둘째 단계인 '정'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기는 감정입니다.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단계인 '려'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고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흘 동안 굶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싶다는 본성적 욕구를 느낄 것이고, 그때 떡을 본다면 입에 침이 고이면 서 저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자기보다 더 볼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모르는 척하고 혼자 먹을지 나누어 먹을지 아니면 그냥 다 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려'입니다. 넷째 단계인 '위'는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는 작용입니다.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에게는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시문 (나)

In a peaceful revolution, the nobles of Sweden in 1809 deposed King Gustav IV whom they considered incompetent. Then, they surprisingly invited Jean Baptiste Bernadotte, a French general who served under their enemy Napoleon, to become the King of Sweden. When Bernadotte addressed in the Swedish Parliament in their language, his broken Swedish made the Swedes roar with laughter. In this incident, Bernadotte was a victim of culture shock: never in his French education and military career had he experienced subordinates who laughed at the mistakes of their superior. He was a good learner, however, and he led the country as a highly respected constitutional ruler until 1844.

A social psychologist developed the concept of power distanc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 more powerful and the less powerful in social contexts, based on the research among the employees of a global firm in similar positions but different countries. Power distance is one of the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t reflects the range of answers found in the various countries to the basic questions of how to handle the fact that people are not equal. The index of power distance (PDI) for 50 countries was calculated. The PDI of Sweden was 31 out of 100 and that of France was 68. The higher the PDI, the greater the feeling of power distance. Nonetheless, it does not mean that a country of small power distance is culturally better than that of large power distance.

The PDI informs us about dependence relationships in a country. In small power distance countries, there is limited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and a preference for consultation,\*\* that is, interdependence between boss and subordinat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is relatively small: subordinates will quite readily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In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in contrast, there is considerable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Subordinates respond by either preferring such dependence on a dictator or an authoritarian boss, or rejecting it entirely, which is known as counter-dependence. For example, when there is a disagreement, a few subordinates refuse to follow their bosses.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thus show a pattern of polarization\*\*\*\* between dependence and counter-dependence. In most cases, however, subordinates are unlikely to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directly.

Power distance is explained from the perceptions of the less powerful members. Still, previous studies on leadership have often forgotten that leadership can only exist as a complement to subordinateship.\*\*\*\*\* Authority survives only where it is matched by obedience.\*\*\*\*\* Bernadotte's problem was not a lack of leadership on his side: the Swedes had a different conception of the respect to a ruler from the French, and Bernadotte was a Frenchman. Comparative research projects on leadership valu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how that the differences observed exist in the minds of both the leaders and those led.

\* depose: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다.  
\*\*\*\* polarization: 양극화

\*\* power distance: 권력거리  
\*\*\*\*\* subordinateship: 부하로서의 행동 양식

\*\*\* consultation: 토의, 협의  
\*\*\*\*\* obedience: 복종

## 제시문 (다)

드디어 드레퓌스가 프랑스 군사 법정에서 풀려났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초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환을 씌우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군부는 기상천외한 삼류 소철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야!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명세

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부는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못사람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국가적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드레퓔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참모 본부의 한 장교가 어느 날 외국의 한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엽서를 본 장교는 명세서의 작성자가 드레퓔스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직에 막 취임한 비요 장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를 들은 비요 장군과 참모 본부는 에스테라지 소령의 유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 소령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퓔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요 장군은 드레퓔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체로 장관직에 취임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휘하는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자신이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하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책임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요 장군과 부하들이 드레퓔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위의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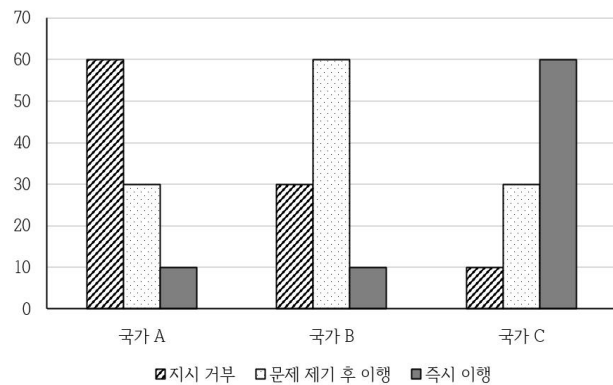
**제시문 (라)**

어떤 조사기관에서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가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국가 A, B, C를 조사했다. 기업 문화 중 특히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1) 끝까지 거부, (2)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 이행, (3) 문제 제기 없이 즉시 이행.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 평균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국가별 대응 유형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외의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국가별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비교 (국가 평균)

국가	A	B	C
개인 윤리성	높음	높음	낮음
권력거리	큼	작음	작음

<그림>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 (단위: %)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군주에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군주가 군대를 통솔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란 병사들이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군사적 업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의 부대에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냉혹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국가별 차이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 지수  $x$ 를 구간  $[0, 1]$ 에서 정한다.  $x=0$ 이면 모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완전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고,  $x=1$ 이면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행하는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다.  $x$ 가 증가할수록 수직적 조직 문화에 가까워진다. 대표가  $x$ 의 값을 정하면, 부서 A의 성과는  $g(x) = -5x^2 + 2x + 3$ 이 되고, 부서 B의 성과는  $h(x) = x^3 + x$ 가 되며,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g(x) + h(x)$ 가 된다. 구간  $[0, 1]$ 에서 부서별 성과  $g(x)$ 와  $h(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을 각각  $x_1, x_2$ 라 하자. 이때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거부감이 있어서 전체 성과  $f(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  $x_3$ 을  $x \geq m$  ( $0 < m < 1$ )에서 정한다.  $m$ 은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x_1, x_2, x_3$ 의 값을 각각 구하고, 그 값들을 비교하여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적 불평등, 분배적 정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분업, 노동자,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부조리,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적 연대
예상 소요 시간	8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A국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반면 자영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다. B는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하고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

- 개인이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룸\*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룸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 1,000유게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1유게룸=0.25ha

②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③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과 사물을 아울러 잘 다스린다.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그 분야를 맡기면 국부가 넉넉해진다.

④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

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멕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  
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  
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  
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중략)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  
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중략)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짚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⑤

생명체가 가진 많은 수의 유전자에는 효소뿐만 아니라 특정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유  
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단백질에  
의해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과 같은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3 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3 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합성될까?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와 같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후, 코돈을 번역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 중에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있고, 생명체에서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으며,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작용하는 것도 있다.

\* 리보솜: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 코돈: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 (±50자)로 작성)**

⑥

[그림1]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연도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2010	63.0	55.3	49.7	33.3
2015	65.0	55.3	49.7	35.0

※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대기업 정규직=100) (고용 노동부, 2016)

[그림2] 디지털 음원의 수익 구조

구분	비율 (%)
제작사	44
음원 유통 업체	40
가수	6
작사·작곡·편곡가	10

(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림3]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

원인	비율 (%)
부의 세습으로 계층 이동 곤란	31.0
비정규직의 노동 시장 불명확	22.2
과도한 학벌 사회	16.5
부족한 사회 안전망	14.7
기타	9.8
모름·무응답	5.8

자료: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 2012

[그림4]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연도	부정 수급자 수(명)	부정 수급액(백만 원)
2013	21,735	11,725
2014	22,108	13,092
2015	21,493	14,806

(고용 노동부, 2015)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과거의 단순 협업과는 다르다. 과거의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노동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시켰다.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결국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이 물질에 종속되어 인간성을 상실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사회 계층과 불평등’, ‘사회정의와 불평등’, ‘생명 시스템’, ‘대한민국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통합과학>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사회사상’,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생명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b>적용 교육과정</b>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한국사) 교육과정” 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b>관련 성취기준</b>	1. 교과명: 국어		
	<b>과목명: 문학</b>		<b>관련</b>
<b>성취기준</b>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②,④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3) 사회와 윤리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③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사상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⑦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2세사04-01]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	제시문①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림①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그림④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그림②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4) 대한민국의 발전 [10한사04-07]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그림③

4. 교과명: 과학

과목명: 통합과학		관련
성취 기준	(5) 생명 시스템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3	268	제시문②	×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9	260-272	제시문④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3	273-279	제시문④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3	85	제시문③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3	79-83	제시문③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3	80-83	제시문③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202	제시문⑦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3	209-212	제시문⑦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3	200-202	제시문⑦	○
세계사	최준재 외	미래엔	2023	103	제시문①	○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23	109-111	제시문①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23	110-113	제시문①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3	169	제시문⑥	×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3	164	제시문⑥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3	160-163	제시문⑥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3	170	제시문⑥	×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23	172-177	제시문⑥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23	164-167	제시문⑥	×
한국사	송호정 외	지학사	2022	289	제시문⑥	×
한국사	노대환 외	동아출판	2025	277-280	제시문⑥	×
한국사	신주백 외	씨마스	2025	312-315	제시문⑥	×
통합과학	김성진 외	미래엔	2023	162-163	제시문⑤	○
통합과학	신영준 외	천재교육	2023	162-173	제시문⑤	○

### 5.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제시문 ⑥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제시된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2번 문항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의 인간 소외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한다는 제시문 ⑦의 주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td> </tr> <tr> <td>①</td> <td>15</td> <td>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td> </tr> <tr> <td>③</td> <td>15</td> <td>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td> </tr> <tr> <td>④</td> <td>최고점 13</td> <td>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td> </tr> </tbody> </table>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li>‘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옹호의 경우</th> </tr>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td> </tr> <tr> <td>①</td> <td>15</td> <td>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td> </tr> <tr> <td>④</td> <td>15</td> <td>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td> </tr> <tr> <td>③</td> <td>최고점 13</td> <td>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td> </tr> </tbody> </table>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은 경제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그림1], [그림3]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림2], [그림4]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li> <li>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고 기준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는 반환하도록 하는 법을 다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li> </ul>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한다면, [그림1]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림3]에서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누진적 조세 제도와 재분배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언급한다. 이처럼 능력에 따른 고용 제도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농업, 상업, 공업 분야 등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를 실업 급여와 연계하여 [그림4]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②는 민중이 '햇살 따라워질수록'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짐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그림1]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그림2]의 작가.작곡.편곡가, 가수 등이 노동조합 조직과 집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분배적 정의의 확립을 촉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

- ④는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는 교수를 통해 번역 업계 수익 구조의 불공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그림2]의 가수 등이 수익 구조에서 소외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⑤는 생명체의 유전자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설명하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처럼 노.사.정 간 꾸준한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림1]과 [그림2]의 노동시장 불평등 및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옹호'의 경우>

- ⑦은 공장제 수공업 등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현상과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 양극화와 억압적 사회 구조 속의 약자를 보여주는 ①, ②와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④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옹호할 수 있다.
- ①은 유력자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해 농민층이 생산 기반인 토지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나 계층 갈등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⑦의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생산 능력이 억압당하고 파편화된 상황과 통한다.
- ②는 따가운 '햇살' 등 자연 현상으로 비유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쓰러지고 쓰러지는' 벽의 모습을 통해 무고한 민중의 고달픈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민중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약자의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⑦의 자본주의로 인해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왜곡당하고 마음이 황폐해진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과 통한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하며,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교수와 교수의 경제력에만 집착하는 처의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⑦에서 비판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고 특수한 기능만 촉진하여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통한다.

<추가>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각각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도 있어야 국부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 ⑤는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이 3 염기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인간을 DNA와 단백질이라는 구성요소로만 파악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의 경우>

- ⑦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를 소외시켜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 ②, ③, ⑤를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 ②는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벼의 생명력과 속성에 빗대어 노래한다. 이는 억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민중의 주체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⑦에서 자본주의 속 노동자가 파편화되고 자아실현에 가로막혀 마음이 황폐해지고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과 배치된다.
- ③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아울러 다스리는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업무 간 효율을 증대시키는 생산 방식이 국부를 넉넉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업이 특수한 기능에만 숙련된 노동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비판하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 ⑤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즉,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형질 발현, 생명 현상 유지처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생명체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업적 생산 방식이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추가>

- ①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제공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가 대농장 경영주와 자영 농민층의 계급적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급 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초래한 계층 갈등, 사회 양극화가 노동자의 소외와 파편화로 귀결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다. '교수'는 물질에 종속된 '치'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피곤하다고 말하며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또한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이 행복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장남'의 말을 통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자본주의로 인해 인간이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국어, 세계사, 세계지리,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예상 소요 시간	8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씩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아득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②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유럽, 아시아 등도 타격을 받아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조정법	곡물 가격 설정, 농업 생산 조절,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	국토 개발과 일자리 제공
국가 산업 부흥법	산업 부문의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사회 보장법	노인 연금, 실업자 수당, 주 정부의 규제활동에 연방 정부의 지원

③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도 웅매듭이 풀어졌다. 백룡이 모친은 밤저녁으로 두레 노는 것을 보고 오는 길에 쇠득이 집으로 들어가서 “형님, 쇠득이가 어짜면 춤을 그렇게 잘 춘다우?”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꺼내었다.

(중략)

백룡이네 논을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쉼 참이 되었다.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싸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여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히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다나?”하고 조 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 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조 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이에게로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지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 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추렴을 들다: 남들이 말하는 데 한몫 끼어 말하다.

\*여북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④

오늘날 한류(韓流)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민족은 70여 년을 분단 상태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位相)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抹殺)\*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文盲率)\*이 약 80%에 이를 정도였다.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중략)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략)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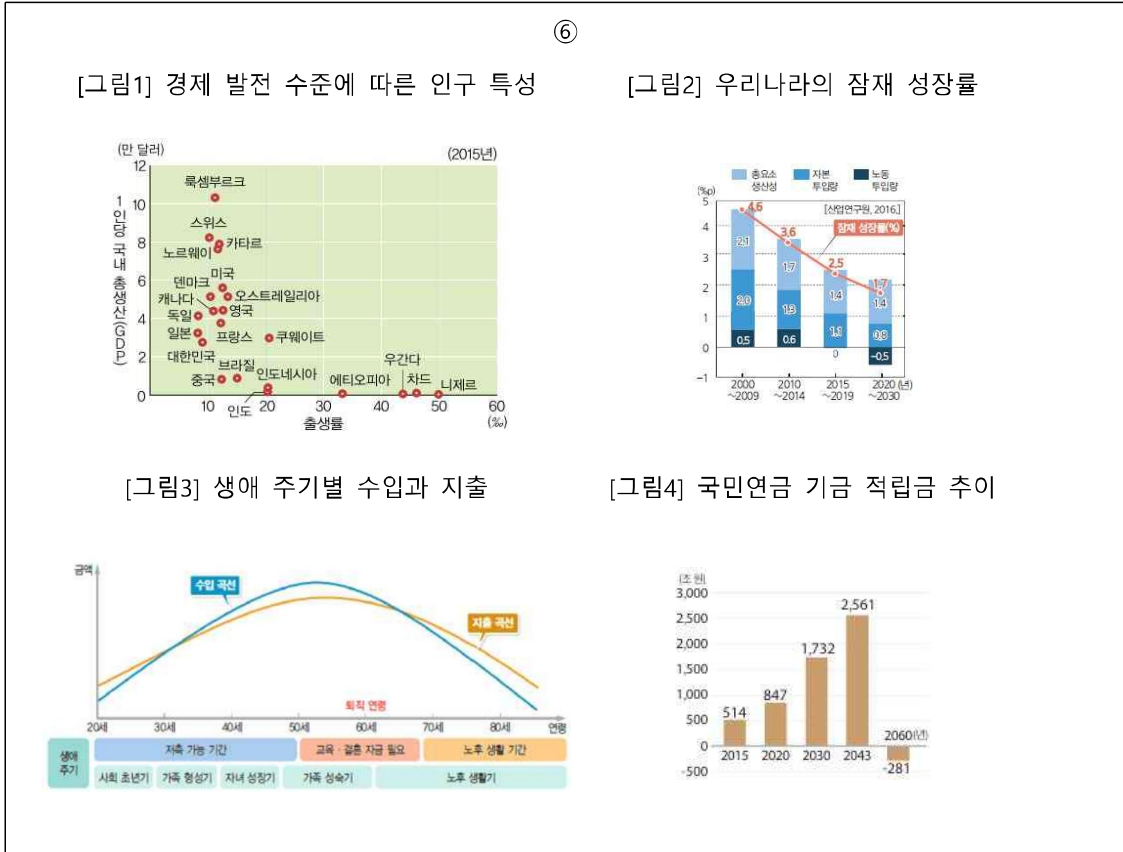
\*말살(抹殺): 있는 사물을 몽개어 아주 없애 버림.

\*문맹률(文盲率):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P_{손실}$ )은 송전선의 저항( $R$ )이 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 )가 클수록 크다( $P_{손실}=I^2R$ ). 따라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한다.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송전선의 제작 비용이 증가하고, 송전선이 무거워져 이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전력( $P_{송전}$ )은 전압과 전류의 곱( $P_{송전}=VI$ )이므로 전력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종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크더라도 소비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만 전력을 소모할 뿐이다. 반대로 전력 사용량이 최대 생산량에 가까워지면 모든 발전기가 최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 한 발전기가 고장나면 다른 발전기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므로 연쇄적인 고장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이 연구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에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초과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념 행위들, 특히 공화국의 기념 행위들이 시장의 세계화와 폭증하는 정보 사회에서 더는 가치가 없는 케케묵은 애국주의의 표현이며, 지나간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비굴해져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에 대해 비겁한 거짓말로 잔뜩 치장한 유치찬란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

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비록 짧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사라졌던 것이라도 그런 자유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를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 3. 출제 의도

- 제시문과 문항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함.
- 주어진 제시문(그림 및 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된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사회 문제(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사회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옹호 또는 비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b>적용 교육과정</b>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b>관련 성취기준</b>	1. 교과명: 국어		
	<b>과목명: 문학</b>		<b>관련</b>
	성취 기준	(4)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①
	성취 기준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제시문③
<b>과목명: 국어</b>		<b>관련</b>	
성취 기준	(4) 문법 [10국04-05]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④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5)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12세사05-02] 제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시문②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12세지03-02] 세계의 일반적 인구 변천 단계와 그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국제적 인구 이주의 주요 사례 및 유형을 도출한다.	제시문⑥ 그림-1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문 ⑥ 그림-2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5) 경제생활과 금융 [12경제05-04]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제시문⑥ 그림-3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⑥ 그림-4

3. 교과명: 과학

과목명: 통합과학		관련
성취 기준	(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10통과09-02]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의 원거리 전력수송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제시문⑤

4.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사상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⑦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21	292~293	제시문①	0
문학	이송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296		0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22	282		0
문학	김동환 외	천재	2023	215~219	제시문③	0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3	230		0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3	226		0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3	347~349	제시문④	0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24	375		0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3	278		0
세계사	최준채 외	미래엔	2023	181	제시문②	0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23	188		0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	2023	182		0
세계지리	박철웅 외	미래엔	2023	71	제시문⑥ 그림-1	0
세계지리	최병천 외	비상교육	2023	75		0
세계지리	황병삼 외	금성출판사	2023	75		0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3	276	제시문⑥ 그림-2	0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262		0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3	260		0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3	192	제시문⑥ 그림-3	0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3	204		0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3	195		0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3	189	제시문⑥ 그림-4	0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3	190		0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3	188		0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188	제시문⑦	0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3	184		0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23	188		0
통합과학	김성진 외	미래엔	2023	295	제시문⑤	0
통합과학	신영준 외	천재교육	2023	288		0

## 5.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그림1~그림4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①~⑤를 통해 제안하는 문항임.
-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 그림3은 고령층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 그림4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고갈을 보여줌.
- 제시문 ①은 생명과 역사의 연속 문제, 제시문 ②는 대공황 상황에서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 제시문 ③은 두레 공동체, 제시문 ④는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제시문 ⑤는 지능형 전력망을 다루고 있음.
- 1번 문항의 답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세대 간 화합을 포함한 개인 인식 차원의 해결책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한 정부 정책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을 기대함.
- 2번 문항은 제시문 ①~⑤ 가운데 세 개의 제시문을 근거로 삼아 공동체와 개인에 관한 제시문 ⑦을 옹호 또는 비판함.
- 2번 문항의 답으로 공동체를 연속된 역사의 기억과 기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옹호하는 입장 또는 공동체를 개인의 희생 또는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판하는 입장을 기대함.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li>'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③, ④,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li> </ul>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잠재 성장률 감소, [그림3]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제적 어려움, [그림4]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고갈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li> </ul>

- ①'버팀목'은 죽은 나무는 산 나무를 살리고, 다시 산 나무는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린다. 서로 다른 세대가 동반자 관계로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세대 화합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정의의 태도를 가진다.
- ③은 '노동'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말한다. 양성평등 가치에 기반하여, 가족 공동체 내에서 공동 가사,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②은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설명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실버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교육과 인력개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전 연령대의 고용을 통해 청년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기금 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

<추가>

- ④를 활용한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증가는 한국 취업, 결혼, 유학 등의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성장을 감소로 완화시키고 국민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를 활용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률 감소를 완화시키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옹호'의 경우>

- 2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① ② ④를 통해 옹호할 수 있다.
- ①에서 산 나무는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앞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자긍심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바탕이 된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 ②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애국심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른 맹목적인 미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 ④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잊혀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어가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다. 한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지켜낸 경험과 자긍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한국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추가>

- ③을 활용할 경우: ③은 '두레'라는 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통일과 화해를 이루고자 함을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며,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는 경험의 공유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내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 ⑤를 활용할 경우: ⑤에서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 수송 방식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발전소와 소비자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력 생산과 공급,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재발견해 낼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미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비판'의 경우>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③ ④ ⑤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
- ③은 두레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은 불가항력의 운명에 따른다는 '숙명적 인생관'을 보인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면 도덕적 의무감이 생겨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④는 한국어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고서도 한국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는 문화 공화국이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⑤는 전력 공급 시설과 소비자 간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을 소개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소와 소비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다. 이는 ⑦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를 한 방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시민을 수직적으로 관계짓는 닫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다.

<추가>

- ①을 활용할 경우: ①은 버팀목과 산 나무의 관계를 통해, 과거는 사그라져 현재를 세우고 현재는 빛나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 사그라져야 하는 순환적 소멸을 보여준다. 과거가 현재에 사라진다는 입장은, 과거의 기억과 재발견이 현재와 미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②를 활용할 경우: ②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은 시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에게 공화주의적 덕성과 도덕적 의무감을 요구하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